- 어디까지 흘러갈 지 나는 모른다 -

스물이 되기 전에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부모 품에서 보호받고 학교와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다음, 성인이 되면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 전공을 택하여 앞으로 살 길을 마련해야 하니까.

나는 20에 그 길을 새롭게 정해야 한다고 책 속을 걸으며 관념의 길을 헤맸다. 사랑을 해야 하는데 사랑을 읽고 있으니 이상만 높아지고 사랑할 대상을 찾는데 장애만 되더라. 29세까지 내 짝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공부를 더 하자싶어서 편입을 하고나니 그 마음뿌리에는 동생들 결혼하라고 길 터준 것이었다. 하지만 공부 좋아하는 사람인가보다 하고 지인이 공부하는 사람을 소개해주어 비로소 29세에 결혼을 하였다.

이번에는 남편에게 내조를 잘 하고 자식을 잘 키워야겠다고 책을 들고 기도를 하다가 10년을 보내고 나니 불만과 병만 남았다. 자신의 욕구를 지나치게 누른다는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 너무나 늦게 알았다.

살기 위해 인생관을 재정비하고 인격재건축에 돌입했다. 재건축이라면 터만 남겨두고 일단 부수워야 하니 그 아픔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말 먼지 날리는 것 방지하기 위해 눈물뿌리고 건축쓰레기 같은 내 인생이 훗날 글 소재가 되어줄 줄 미처 몰랐다.

무엇을 벽돌삼이 인격의 집을 세울 것인가. 이리저리 귀동냥 하고 다니다가 모자라 신학원에 등록하여 기본을 터득하고 문화센터로 나아가 종교에 문학을 접목했다. 다시 내 안은 가득해지고 다 큰 자식들 걱정으로 매운 연기가 풀풀 날리니 본격적으로 굴뚝 청소를 해야 하게 생겼다.

키우는데 건강 문제로 애먹은 일이 없으니 어려움에 대한 면역이 약하다. 연년생 아이들이 고3 고개를 넘는데 내색은 안하지만 내가 먼저 넘어가게 생겼다.

주변을 단촐하게 만들고 날마다 4시간씩 명상을 했다. 6개월 남짓 몰입하다가 보니 살은 쪽쪽 내리고 눈이 퀭해지더니 어느 날 배꼽 아래에서부터 시퍼런 기운이 올라와 양 미간 사이를 치더니 무엇이 뻥 터진다.

이 기분을 누가 알까. 개운하고 시원하고 툭 트이는 기분만 아니라 어디선가 힘이 솟는다. 그날부터 보이는게 다르고 생각하는게 달라진다. 몸은 말라서 꼬장꼬장한데 기운은 엄청 세졌다. 무서운게 없고 부러운게 없고 그대로 그냥 날아갈 것같았다. 어디서 오는 힘일까. 그 힘은 어디 있는 것일까.

말없이 평화를 즐기는데 나의 삶에 대해 묻는 사람이 생긴다. 신기하다. 모른다. 내 안에서 이끄는 대로 살아서 나는 모른다. 다만 내가 아닌 어떤 힘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뿐이다. 내가 갈 길은 그 힘이 내는 것이지 나의 욕구가 내는 것 같지 않다.

이제 세운 집 밖으로 나가 기운을 필요한 대상에게 사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궁리를 하는데 일이 찾아든다.

"이것 좀 해보시렵니까. 좀 해주면 좋겠어요."

돈을 주고라도 그 일을 하라고 권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순순히 하겠다고 했고 그 일은 지금까지 이어진다. 이 또한 나에게는 신비이다.

그 사이 1,000편의 글로 인생 쓰레기를 승화시켜 다 버리고나니 다시 세워야 할 일이 남았다. 죽는 날까지 이어지는 자식 걱정, 그것도 바닥을 치고나니 자유가 찾아온다. 나는 하루하루 이끄는대로 살아가는 법을 익혔다. 글을 쓰며 에너지를 태우고 천보만보를 걸으며 땀을 낸다. 본디 아무 것도 없었으므로 아무 것도 없이 만드는 것이다. 본성적 욕구와 대치되는 작업이라 결코 만만치 않다. 어느새 잎을 떨궈야 하는 인생의 계절 앞에 서 있다.

물이 차면 넘치고 넘친 물의 흐름이 세면 새 물길이 난다. 나는 종종 새 길로 간다. 조금 두렵다가 이내 적응한다. 어디까지 흘러갈지 나는 모른다.

<문화홍보분과, 1구역 5반 오정순 알비나>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 헌 예 물		감 사 헌 금 (11월 17일 현재)				교무금 납부 현황	
교 무 금	20,105,000	고 엘리사벳	100,000	전 니콜라오	200,000	총 세대수	3,696
주일봉헌금	11,632,060	김우곤	300,000	김 안젤라	100,000	총 납부세대	1,302
평신도주일2차헌금	5,986,350	하크레센시아	20,000	신 스테파노	30,000	지난주 납부세대	6
성소후원금 (4건)	140,000	박 라파엘	100,000	김 예로니모	100,000	지난주 납부율(%)	35.2
		신 아오스딩	100,000	한 로사	100,000		
		한 필립보	100,000	합계 : 1,250,000원			